

백용환 “나는 포수...9회까지 안방 지키다”



수비 잘하면 출전 기회 늘 것 타격자세 바꿔 장타 날려야죠

잇을 수 없는 시즌을 보낸 백용환이 '9회'를 노린다.
KIA 포수 백용환에게 올 시즌은 역전의 해였다. 후배 이흥구의 무서운 상승세에 밀려 백용환은 여름이 다 되어서야 처음 1군 무대를 밟을 수 있었다. 7월2일이 백용환의 올 시즌 첫 1군 경기. 그리고 3번째 경기 만에 홈런을 날린 백용환은 65경기 나와 10개의 한방을 선보이며 이흥구와 함께 타이거즈의 첫 '포수 동반 10홈런'을 합작했다. 극적인 끝내기 홈런과 '괴물' 김광현을 상대로 한 만루홈런도 있었다.
백용환은 “올해는 보람도 있고 프로에 와서 처음으로 재미있게 야구를 한 것 같다. 무엇보다 5강 싸움을 할 때 팀에 보탬이 됐다는 것이 가장 의미있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긍정의 힘”으로 이룬 역전의 시즌이다. 백용환은 “시즌 초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김상훈 코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하라고 많이 말씀해주시고 응원해 주셨다. 긍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기다렸더니 기회가 왔다. 올 시즌 SK 전 역전 홈런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잇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5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캠프 흥행전에서도 백용환은 ‘볼펜의 핵’ 심동섭



KIA 백용환(22번)이 25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전체 연습경기에서 5회 2사에서 만루홈런을 친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홈에 들어오고 있다.

을 상대로 좌중간을 넘어가는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파워를 과시했다. 힘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2015시즌 역전극을 이뤄낸 백용환이지만 이번 마무리 캠프의 우선 순위는 ‘수비’다. 타자이기에 앞서 그는 포수 백용환이기도 하다.
백용환은 “오늘 타구는 빗맞았는데 운 좋게 넘어갔다. 루상에 나가도 내가 빠른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타에 신경을 쓸 생각이다. 내 장점을 살려야 한다. 타격에 조금 변화를 줘야 한다. 타이밍 잡는 부분을 위해 다리를 들고 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포수로서의 역할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캠프 처음 올 때 수비 쪽을 생각하고 왔다. 볼로킹, 송구 실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코치님도 그렇고 많이 좋아했다고 해주셨다. 스프링캠프에서도 안 아프고 잘해서 개막전 엔트리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타자·포수 백용환의 힘을 키운 이번 캠프는 배터리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백용환은 “캠프에 어린 투수들이 많은데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힘이 많이 들었

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수비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캠프가 성공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백용환의 다음 목표는 ‘9회’다.
백용환은 “포수를 잘해야 타격에서도 기회가 오고 경기를 더 많이 뛸 수 있다. 9회까지 버티는 게 목표다. 경기 끝까지 안방을 지킬 수 있는 포수가 되도록 하겠다. 잇을 수 없는 2015시즌이었다. 캠프를 통해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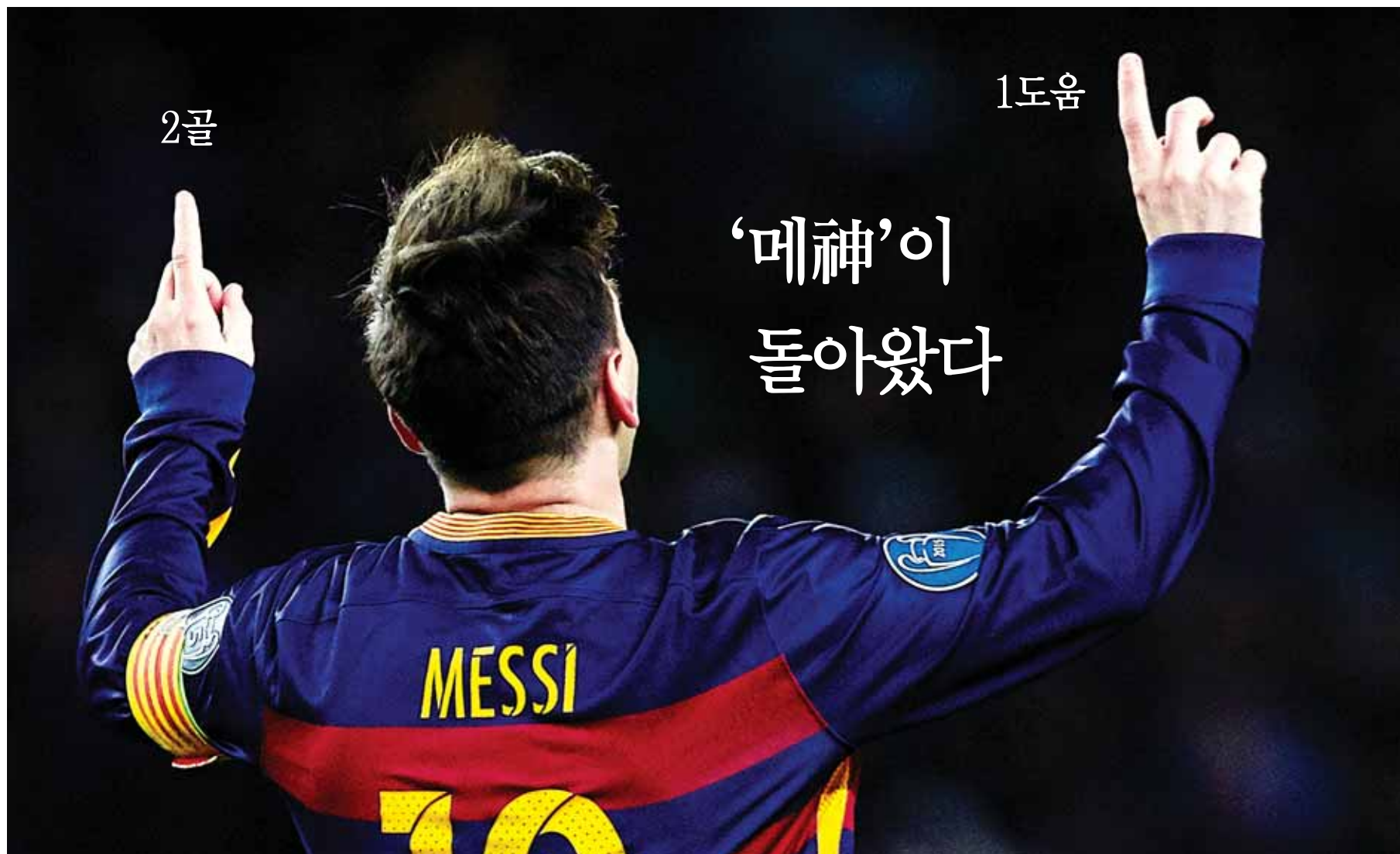
0-13 처참한 스코어에도 덕아웃 파이팅 넘쳐나네

포기 모르는 어린 선수들 덕에 달라진 풍경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각오는 비장했다. 마무리 캠프에서 치르는 마지막 실전 무대, 상금을 놓고 벌이는 자존심 싸움이기도 했다.
1회초 백팀 선발 유창식이 정상고에게 중전안타, 박진두에게 볼넷을 내주기는 했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넘겼다. 1회말 홈팀 선발 홍건희가 1사에서 이인행에게 우중간 3루타 맞은 뒤 홍재호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백용환과 전현태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0-0으로 첫 이닝이 끝났다.
그러나 2회말 2사에서 홍건희가 최병연의 안타와 노수광의 볼넷으로 흔들렸고 ‘꼬마 포수’ 신범수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맞으면서 2점을 내줬다.
0-2로 뒤진 3회 한승혁이 홈팀 마운드에 올랐다. 152km의 직구를 뿌리며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이닝을 종료시켰지만 볼넷으로 시작된 4회 한승혁이 정신없이 주자들을 내보내고 홈을 허용했다. 실책성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백팀의 스코어는 실재없이 올라갔다. 결국 투수가 좌완 김명찬으로 교체됐지만 이미 점수는 0-13까지 벌어진 상황이었다.
순식간에 흐름이 기울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덕아웃 분위기가 눈에 띄었다. 박진두가 전면에 나서 “이길 수 있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경기 도중 비가 쏟아지자 “비가 내린다. 철수철



수”를 외치기도 하는 등(사진 오른쪽) 언뜻 보면 이기고 있는 팀 덕아웃을 보는 것 같았다. 일반적인 흐름으로 경기가 전개되기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덕아웃 분위기와 어린 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에서 달라진 KIA를 엿볼 수 있었던 연습경기였다.
그러나 경기는 홈팀의 대패로 끝났다. 백팀 투수가 대타하고 있던 심동섭까지 홈팀 마운드에 투입됐지만 백용환의 만루포가 터지면서 1-18로 경기 끝이 났다. 승자가 된 백팀은 경기 종료와 함께 숙소행 버스에 올랐다. 패자 홈팀은 오키나와의 해가 기울 때까지 배팅 연습을 했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FC 바르셀로나와 AS 로마 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예선 E조 경기에서 메시가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이날 바르셀로나는 로마에 6대 1 대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나란히 2골씩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친 ‘스페인 거함’ FC 바르셀로나가 AS로마를 대파하고 2015-2016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바르셀로나는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캠프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E조 5차전에서 AS로마(이탈리아)를 6-1로 크게 물리쳤다.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메시와 골잡이 수아레스가 나란히 2골씩 꽂았고, 헤라르드 피케와 아드리안누가 1골씩 맞보며 후반 종료 직전 에딘 제코가 골맛을 본 AS로마를 격절했다.
이날 승리로 4승1무(승점 13)를 기록한 바르셀로나는 2위인 AS로마(승점 5)와의 승점차를 8로 벌리면서 남은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1위를 확정하고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UEFA 챔스 78·79호...바르셀로나 MSN 막강전력 과시

바르셀로나는 전반 15분 다니 아우베스의 도움을 받은 수아레스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3분 뒤에는 수아레스의 도움을 받은 메시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바르셀로나의 MSN(메시-수아레스-네이마르) 콤비의 패스 플레이가 로마의 수비진을 완벽하게 허물었다.
네이마르와 일대일 패스를 주고받은 메시는 다시 수아레스에게 볼을 넘겼고, 수아레스는 쇄도하는 메시를 향해 ‘리턴 패스’를 넣어줬다. 메시는 뛰어난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있는 슈팅으로 결승골을 꽂았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44분 왼쪽 측면에서 네이마르가 올린 크로스가 수비수 머리

에 맞고 흐르자 수아레스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기막힌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골이자 자신의 멀티골을 작렬했다.
후반에도 바르셀로나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14분 수아레스가 페널티지역에서 찰라준 패스를 메시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잡아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피케에게 정확히 볼을 내줬다. 피케는 텅 빈 골대에 볼을 꽂았다.
스코어가 5-0으로 벌어졌지만 바르셀로나 공격은 계속됐고, 후반 14분 메시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또 한 번 환호했다.
네이마르가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내준 크로스를 수아레스가 눈스톱 패스

로 메시에게 내줬고, 메시는 전방으로 쇄도하며 슈팅했다.
메시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흘러나온 볼을 메시가 재차 차넣으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전반 18분 결승골에 이어 쐐기골까지 책임진 메시는 멀티골과 더불어 자신의 통산 챔피언스리그 득점물 79호골로 늘리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 역대 최다골 기록의 주인공인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83골)에게 4골차로 접근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32분 네이마르가 시도한 페널티킥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나온 것을 아드리안누가 득점으로 마무리하며 골사냥의 마침표를 찍었다.
AS로마는 후반 추가시간에 제코가 헤딩으로 만회골을 넣으면서 힘겹게 영패를 막았다.
/연합뉴스

기성용·손흥민 AFC ‘올해의 최 해외파 선수’ 후보

슈틸리케호의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손샤인’ 손흥민(토트넘)이 아시아 축구연맹(AFC) 선정 ‘올해의 아시아 해외파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AFC는 25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오는 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2015 AFC 어워즈’ 각 시상 부문 후보를 공개했다.
한국은 지난 19일 먼저 공개된 ‘올해의 선수’ 부문에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했지만 이날 발표에서 ‘올해의 아시아 해외파 선수’ 부문에 기성용과 손흥민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아시아 해외파 선수’는 AFC가 맹구 선수 가운데 자국 리그를 떠나 해외 무대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를 뽑는 상이다. 기성용, 손흥민과 함께 호주 대표팀의 공격수 마시모 루용고(퀸스랜드 레인저스)가 후보로 선



정됐다. 이밖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AFC 올해의 국가대표팀’ 부문에서 아시아 안팎 우승을 따낸 호주 대표팀, 2015 FIFA U-20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으로는 유일하게 8강까지 진출한 우즈베키스탄 U-20 대표팀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또 대한축구협회는 일본축구협회, 중국축구협회와 함께 ‘올해의 페어플레이 협회’ 후보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2019 세계수영선수권 향해” 광주 다이빙팀 창단

광주에도 수영 다이빙팀이 드디어 창단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5일 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수영 다이빙팀(감독 고병진)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체육회는 오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지역 출신 선수 확보와 육성을 내걸고 다이빙팀 창단을 추진해왔다.
다이빙팀은 국가대표상비군 코치를 지냈던 고병진 감독을 중심으로 남자부의 경

우 전국체전 3관왕 경력의 조성인(22), 광주체고 출신의 류민재(19), 여자부는 국가대표상비군 출신의 박하림(18), 최근 열린 제 96회 전국체전 금메달 리스트 정다연(18)으로 꾸려졌다.
시체육회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다이빙팀 운영을 위한 예산(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광주 외에 다이빙팀을 육성 중인 지자체는 부산과 대전, 경기, 강원, 제주 등이다.
/김지우기자 dok2000@